

# ‘본풀이’의 기호학\*

송 호 섭

## 1. 굿과 본풀이

본풀이는 제주도의 굿에서 구연되는 신의 내력담을 이르는 말이다. 본풀이는 ‘본을 풀다’의 명사형으로서, 그 자체의 개념 속에 이야기를 구연 혹은 가창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풀다’는 흔히 ‘이야기를 풀다’에서 보듯, 전개 혹은 진행의 의미를 함축하며, 이는 서사가 갖는 본래적 속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풀이는 일반적인 서사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그 명칭에 내포하고 있다. ‘본’이라는 말이 근본이라는 뜻으로서 진행적인 의미보다는 회귀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을 풀다’는 말은 진행적이면서 동시에 회귀적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본풀이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서사의 끄트머리에서 서사에 의해 추구되어온 이야기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서사 자체에서 근원에 위치하는 가치는 아니다. 그렇다면 ‘본’이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근본을 설명하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본풀이

---

\* 이 연구는 1997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를 통해 두 가지 차원의 문화 양식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본’ 자체가 이야기 가치가 되는 서사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본’이 실제로 ‘근본’으로서 존재하는 무속 제의 혹은 문화의 차원이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본풀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에 해당된다. 본풀이에서 서사의 진행을 통해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역할은 본풀이 속에서 주인공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가 되며, 이를 위해 서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나 가치가 또 다른 차원, 즉 무속 제의나 문화에서는 모든 사고나 행위의 근원에 자리잡게 된다. 어떤 역할을 가진 신이 존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제의가 베풀어지고 신앙이 유지된다. 따라서 본풀이가 굿의 과정 속에서 구연된다는 점에서 그것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본풀이가 굿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풀이가 굿과 갖는 관련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본풀이와 굿이 이와 같은 인접성의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본풀이 자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것은 또한 그 나름의 어떤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풀이가 굿이라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면, 하나의 완결된 줄거리를 담고 있는 그것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굿에서 구연되는 다양한 본풀이 텍스트를 접하며, 그것이 표상하는 주제와 세계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본풀이에 접근하든 우리는 굿 혹은 무속 문화라는 맥락과 유리시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 본풀이에 대한 해석은 본풀이를 지배하는 굿의 약호 혹은 무속 문화의 약호를 추론해내는 일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풀이는 굿에 대한 혹은 무속 문화에 대한 해석소<sup>1)</sup>의 역할을 한다. 기호를 ‘어떤 것이 어떤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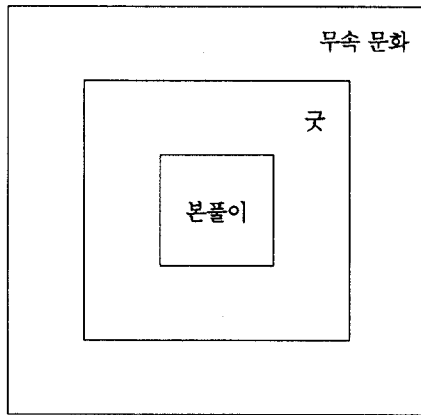
1) 해석소는 퍼스가 제시한 개념인데, 기호가 누구에게 전달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동가적이거나 더 발전된 기호로 만들어질 때, 그 기호를 앞서의 기호에 대한 해석소라 한다. 본풀이가 굿 혹은 무속 문화에 대한 해석소라 함은 본풀이에 굿 혹은 무속 문화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135.

김성래는 의례적 연행(굿) 가운데의 신화(본풀이)가 “구송하는 사제자나 경청하는 청중에게 신성의 현존에 대한 규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임을 지적하며, “신화는 문화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면, 본풀이는 굿 혹은 무속 문화를 나타내는 기호(해석소)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나타냄은 단지 자의적으로 결합된 기표와 기의의 관계처럼 이미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추론되고 해석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본풀이를 중심으로 그것이 굿 및 무속 문화와 갖는 기호학적 관계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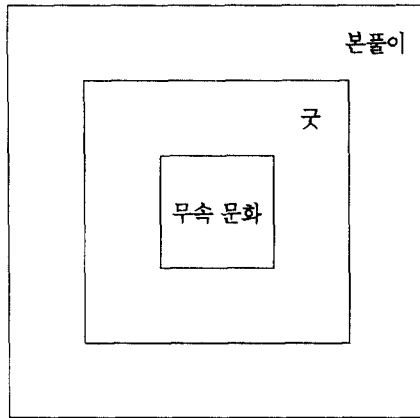
먼저 본풀이, 제의, 무속 문화가 갖는 인접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이는 본풀이가 굿과 무속 문화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본풀이의 존재론이라 한다면, 우리는 본풀이에 드러난 굿과 무속 문화의 모습을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본풀이의 인식론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

적 도식의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굿이나 문화와의 관계에서 본풀이의 기능성 내지는 규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풀이가 제의와 무속 문화 일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는 전제에서 퍼스의 해석소의 개념을 이끌어온 것이다. 김성례, 「무교 신화와 의례의 신성성과 연행성」, 『종교-신학 연구』 10집, 서강대학교 종교-신학연구소, 1997, pp. 115~16 참조.



이러한 두 개의 그림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문화기호학의 시각에서 이들을 결합시켜 본풀이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본풀이를 텍스트로 읽는다. 본풀이에 대한 읽기를 통해 굿의 약호를 읽어내는데(인식론적 측면) 그것은 본풀이가 굿의 맥락에 존재한다는 전제(존재론적 측면)를 바탕으로 한다. 본풀이를 통해 필자가 추출해낸 의미는 퍼스가 말한 해석소이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산출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통된 약호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곧 굿이나 무속 문화에 대해 필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 주로 바탕이 된다. 굿에서 무속 문화의 약호를 읽어내지만, 그 바탕이 또한 무속 문화의 약호라는 점에서 이는 순환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논의는 이러한 순환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가추법에 의존한다. 가추법이란 개연적 규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어떠한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개연적 규칙을 검증하는 방법이다.<sup>2)</sup> 따라서 본풀이를 통해 이끌어낸 굿이나 무속 문화의 약호는 이미 존재하는 굿이나 무속 문화의 약호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거기에 필자의 해석이 덧붙여짐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

2) Umberto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p. 40.

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 생성 과정에 대한 기술의 하나이다.

## 2. 본풀이, 열린 서사체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을 통해 우리는 본풀이를 포함하여 제주도의 굿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부감할 수 있다.<sup>3)</sup> 텍스트 읽기를 통해 우리는 서사체로서의 본풀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의 맥락, 그리고 제의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비서사적 담론들을 접할 수 있다.

먼저 제주도 큰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처스본풀이  
지장본풀이  
스만이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이러한 본풀이들은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존재한다. 이들

---

3)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신구문화사, 1980, 이하 『사전』으로 약칭). 이 밖에도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민속원, 1991); 문무병, 『제주도 무속 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이 있어, 제주도 본풀이의 전모를 보여준다.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 이야기가 추구하는 이야기 가치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 차원에서 이들 본풀이가 갖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자.

필자는 이미 한국 신화에서 추출한 보편적 줄거리 단위의 연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sup>4)</sup>

출생—죽음  
과업—과업 수행  
시련—시련 극복

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연쇄를 바탕으로 국조 신화와 무속 신화에서 이들 연쇄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살핀 바 있었는데, 이때 무속 신화는 탄생과 죽음의 연쇄가 ‘탄생—죽음—재탄생’으로 나타나는 국조 신화와는 달리, ‘탄생—재탄생’으로 나타나며, 과업과 과업 수행, 시련과 시련 극복의 연쇄는 ‘과업—시련—시련 극복—과업 수행’ 혹은 ‘과업—과업 수행’으로 나타나는 국조 신화와는 달리 ‘과업—시련—시련 극복—과업 수행—과업’으로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속 신화에서 주인공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으로 좌정한다는 것과, 그의 과업을 이루는 순간 또 다른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본토 무속 신화인 「바리공주」와 「제석본풀이」의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지만, 그것이 제주도 본풀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으로 태어나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신으로 좌정하며, 「할망본풀이」에서의 멧진국 딱님아기와 동이요왕(東海龍王) 딱님 역시 ‘죽음’의 과정 없이 아이를 접지 잉태시키는 생불왕과 아이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이 된다. 이

4) 송효섭, 「한국 신화의 두 담론: 그 구조와 문화적 의미」, 『남경 박준규 박사 청년 기념 논총』, 1998, p. 815.

는 다른 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간의 경계가 모호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인공은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의 세계와 초월 세계로 여행한다. 이러한 미분화는 삶과 죽음이 비교적 쉽사리 하나의 범주로 존재하게 한다. 이들 본풀이에서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풀이에서의 죽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생이나 환생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국조 신화에서 주인공이 죽음 이후 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들이 죽음 이후 초월 세계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것과는 달리, 본풀이에서는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난 세계 역시 현실 세계가 된다. 가령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암이 제인장제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아들인 할락궁이는 서천 꽃밭에서 도환생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려내며, 「처스(差使)본풀이」에서도 동경국 버무왕의 세 형제가 과양생이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들은 쌍둥이 세 아들로 환생한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은 조청비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조청비는 도환생꽃으로 그를 되살린다. 다만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 부인이나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죽음 이후 인간으로 환생하지 않고 조왕신이나 측간신으로 좌정한다. 이러한 양상은 현실계와 초월계, 삶과 죽음에 대한 분화가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죽음이 현실적 삶의 종말로서 뚜렷이 인식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풀이의 탄생과 죽음의 연쇄는 '탄생—재탄생' 혹은 '탄생—(죽음)—재탄생'과 같이 나타난다.

또 과업과 과업 수행, 시련과 시련 극복의 연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과업'으로 마무리지어지는데, 이는 본풀이의 신이 그 이야기가 치로서 신의 직능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신의 직능은 앞으로 행하게 될 잠정적 행위를 내포하는데, 행위로 이루어지는 서사의 연쇄가 잠정적 행위로 마무리지어짐으로써, 본풀이는 미래로 개방된 서사체의 모습을 띠게 된다. 본풀이 주인공의 본격적 과업도 이제 서사체에서 벗어나 현실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본풀이 안에서의 주인공의 과업은 대체로 배우자와 만나거나 생명을 되

살리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물들간의 분리와 결합은 어떤 서사체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생명을 되살리는 권능을 얻는 것은 본풀이가 갖는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죽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본풀이가 무속 제의에서 불려지는 종교적 담론이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본풀이에 그려지는 세계는 인간이 죽음을 통해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세계가 아닌 삶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어 초월 세계까지 이어지는 세계이며, 본풀이에서의 환생 모티프는 이러한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세계는 선과 악의 윤리적 양항 대립이 존재하며, 이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본풀이에서의 갈등과 투쟁은 이러한 현실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대립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들간의 쟁투가 서사의 골격이 된다. 가령 「천지왕본풀이」에서 동생인 소별왕은 속임수를 써서 이승을 차지하며, 그것이 이승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승리한 것이다. 「할망본풀이」에서 맹진국 따님아기와 동이요왕 따님아기는 쟁투를 통해 각각 생불왕이 되고 저승할망이 되는데, 이는 각각 선과 악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암을 죽인 제인장제나 「처스본풀이」에서 동경국 버무국왕의 세 형제를 죽인 과양생이 역시 악을 표상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죽음을 당한 인물들은 되살아나고, 악인들은 그 죄값을 치른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은 조청비를 겁탈하려 한 악인인데, 오히려 조청비에게 죽음을 당하고,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데귀일의 딸 역시 남선비의 부인을 죽인 악행을 저지르고 측간에서 목매어 죽는다.

이와 같이 본풀이에서 ‘선’과 ‘악’의 대결은 줄거리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며, 이는 본풀이 일반이 갖는 윤리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선악의 대결이 민담에서처럼 분명하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하여 분명한 권선징악의 주제를 구현하는 전통 설화의 토포스가 본풀이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악한 인물들은 「이공본풀이」나 「처스본풀이」에서처럼 징치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본풀이가



추구하는 이야기 가치, 즉 신직을 얻는 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본풀이는 선이 긍정되고 악이 부정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윤리적 양면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줄거리의 논리로만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맥락에서 그것의 상징성이 문제되는 이야기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신화 혹은 전설이 갖는 일반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악인이 줄거리 안에서 행하는 악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행이 무엇을 상징하거나 무엇의 근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악인은 본풀이에서 악을 표상하는 신이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본풀이에 반영된 선악에 대한 윤리적 세계관을 추론할 수 있다. 가령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이 차지한 이승이 악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이야기 속에서 행한 악행 때문이다. 「할망본풀이」에서 불효한 동이요왕 따님아기는 임박스 부인을 죽게 만드는 잘못이 벌미가 되어, 아이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이 된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 역시 여러 악행을 저지르지만, 결국은 목축신으로 좌정하고,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 역시 악행으로 징치되지만 측간신으로 좌정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며, 그것이 이 세상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낳으며, 이들 역시 이 세상에 공존함을 보이는 것이다. 본풀이에서 '선/악'의 윤리적 양항 대립과 결합된 양항 대립적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저승/이승

생명/질병

농경/목축

부엌/측간

이들 양항 대립을 통해 우리는 본풀이에 드러나는 문화적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줄거리 속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통합하기보다는, 이들 양자가 모두 제의나 문화의 맥락으로 스스로를 개방하는 열린

구조를 드러낸다. 이야기 속에서의 양향적 가치는 제의 혹은 무속에서 드러나는 양향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본풀이는 그야말로 무속 제의나 문화의 근본을 풀어가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그 자체가 곧 제의와 문화의 상징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말해 퍼스가 말하는 해석소가 된다.

지금까지 본풀이의 줄거리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본풀이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체이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열린 구조를 갖는 서사체이기도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본풀이가 무엇보다도 이야기 자체의 세계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맥락을 수용하는 열린 서사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죽음과 삶,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의 미분화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종말의 의미를 회색시킴으로써, 늘 초월 세계까지 지속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주체인 주인공은 서사의 꼬트머리에서 새로운 과업을 부여받으며,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채 존재함으로써, 이야기는 현실 세계의 미완결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열린 서사체로서의 본풀이로 하여금 그 맥락의 세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맞게 한다.

### 3. 굿,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본풀이 서사체의 이러한 열림이 갖는 기호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본풀이에서 굿으로, 굿에서 무속 문화로의 열림이 갖는 기호학적 의미를 해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문화의 보편적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굿은 신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것을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굿을 주재하는 심방이 발신자라면 신은 수신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신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심방은 굿을 통해 신이 나타나는 컨텍스트를 창조한다. 심방은 마치 하나의 연극을 연출하듯이 신을 불러 맞아들이고 신과 함께 놀고 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마침내 신을 다시 보내는 전과정을 재현해낸다. 따

라서 이러한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행위가 수반되며, 이러한 행위는 말과 함께 굿의 중요한 양면적 성격을 드러낸다. 제의로서의 굿은 본질적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말은 이러한 행위의 과정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개 굿에서 행해지는 말은 환기적 기능을 통해 인간 및 신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 굿에서 신을 불러들이는 초감제의 절차를 통해 「천지왕본풀이」가 초감제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로서의 본풀이가 행위로서의 굿과 갖는 일반적인 기호학적 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

초감제는 「베포도엮침」 「날과 국 섬김」 「집안 연유 닦음」 「군문 열림」 「새드림」 「오리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베포도엮침」은 제의되는 곳을 하강하는 신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 유래를 읊는다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었나를 설명하고 해명해주는 의의를 가지는 신화이다.<sup>5)</sup> 여기에서 「천지왕본풀이」가 구송된다. 「베포도엮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천지혼합으로 제이르자, 천지혼합을 제일름긴 천지혼합시 시절, 하늘과 땅이 굽이 엇어 니 귀 즈썩허여 올 때 천지가 일무궁뎡웁데다. 천지가 일무궁뎡여올 때 게벽시 도업이 뉘웁데다. 게벽시 도업으로 제이르자.<sup>6)</sup>

여기서 ‘제이르자’는 ‘모두 말하자’의 뜻으로 해석되는데,<sup>7)</sup> 여기에 굿

5) 이수자,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 연구』 제7집, 제주도 연구회, 1990, p. 170.

6) 『사전』, p. 33.

7) 이에 대해 『사전』은 ‘제’에 대한 설명 없이 ‘이르자’를 위(謂)로 해석했고, 전성기, 앞의 책에서는 ‘제’를 재(再)로 해석했으며, 문무병, 앞의 책에서는 ‘제’를 제(祭)로 해석했다. 필자는 김성례 교수를 통해 김운수 심방으로부터 ‘제’가 ‘모두’를 뜻하며, ‘제이르자’는 ‘하늘 옥황에 문을 열자’의 뜻을 전해들었다. 제주 출신의 국어학자 한동완 교수 역시 ‘제’

이 진행되는 두 가지 역설적인 양상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궁이 언어 행위, 즉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진행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진행을 주도하는 행위를 환기시키는 청유적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궁이 행위로서 진행되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언어가 얼마큼 중요한가를 드러낸다. 궁에서 언어는 '제이르자'의 청유형에서 보듯,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궁의 담론 속에는 이러한 청유형이 매우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베포도업침」은 청유형 특히 '제이르자'가 다음과 같이 반복됨을 볼 수 있다.

천지인왕 도업으로 제이르자  
 동성계문 도업으로 제이르자  
 선오선별 도업으로 제이르자  
 월일광 도업으로 제이르자<sup>8)</sup>

이와 같은 반복은 순차성을 띠면서 미분화된 세계가 분화되어가는 서사적 양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무속 담론 특유의 시학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사한 사건을 계기적이고 인과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등가적인 것을 병행시킴으로써 「베포도업침」의 담론은 메시지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른바 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궁이 본래 악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것이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인데, 그것의 담론 역시 매우 강한 시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sup>9)</sup>는 “월일광 도업 제이르니, 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제이르자”로 시작된다. 이러한 ‘제이르니’ 과정으로서 본풀이가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이르나’는 것은 언어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

---

를 ‘모두’로 해석했다. 이로 미루어 필자는 ‘제이르자’를 ‘모두 말하자’로 해석하고, 여기에 ‘하늘 옥황에 문을 열자’의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을 통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술적 의도가 엿보인다.

8) 『사전』, pp. 33~35.

9) 『사전』, pp. 35~43.

때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은 청유형(—하자)으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평서형(—하다)으로 완결된 서술적 구조를 갖는 서사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굿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다시 말해 본풀이는 단지 어떤 행위를 야기시키는 환기적 기능을 갖는 담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무엇을 가리키는 시적 기능 혹은 지시적 기능을 갖는 담론임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풀이는 “느려사난 총맹부인은 가난하고 서난해여서 저녁 짓일 그음이 었어진다” “수명장제 칩의 정을 더겨놓고 불천수를 시겨간다”와 같은 평서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본풀이의 끝은 다시 ‘제이르자’의 청유형으로 돌아가며 다음 제차를 준비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베포도업침」은 ‘청유—평서—청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이르자’라는 언어 행위에 대한 유도과 그 언어 행위, 그리고 또다시 언어 행위에 대한 유도로 끝난다. 「베포도업침」의 이러한 마무리는 본풀이가 자연스럽게 굿의 행위 맥락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며, 이는 굿이 계속된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베포도업침」의 과정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굿의 다른 맥락을 향해 열려 있음을 드러내며, 이러한 열린 구조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본풀이의 구조적 성격과 유사해 보인다. 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관계는 밀접한 인접성과 더불어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야콥슨이 말하는 은유와 환유의 수사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화 보편적인 것이지만, 특히 본풀이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두드러지며, 이것이 신화와 제의 그리고 문화의 관련 양상을 기호학적으로 해명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포도업침」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 할 때, 이는 심방과 단골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청유와 서술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현장으로서의 굿이 비록 심방에 의해 주도된다 하더라도 발신자에서 수신자로의 일방적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드러낸다. 굿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주체는 심방, 단골, 그리고 신이다. 「베포도업침」에서의 ‘제이르자’는 심방이 단골에게 청

유하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 자신에게 이르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굿이 신과 접촉하는 현장이며, 특히 초감제가 청신의 제차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심방이 신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풀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가령 심방이 본풀이로 들어가기 전 하는 말 끝에, “귀신은 본을 풀민 신나락하는 법이웁고 생인(生人)은 본풀민 백년 원수 지는 법이웨다”<sup>10)</sup>라고 하는데, 이는 본풀이가 심방과 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가 갖는 실제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과 다른 신의 속성을 유표화시킨다. 본풀이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일지언정, 신을 위한 이야기이며, 그것의 전달 과정은 또한 인간과 신 사이에 놓인 심방의 이중적 역할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날과 국 섬김」은 「베포도엮침」의 자연·인물·사상의 해설이 점점 좁혀져 굿하는 장소와 날짜의 해설을 노래한다.<sup>11)</sup> 여기서의 ‘날’과 ‘국’은 시간과 공간을 함축한 말로서,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신에게 설명함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특정한 시공간으로 하강하게 한다. 여기서 심방이 발신자가 되어 수신자인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여기서는 ‘-하다’와 같은 동작의 평서형이 아닌 ‘-이다’와 같은 지정의 평서형이 주로 쓰인다. 이러한 지정의 평서형은 심방이 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 강조된다. 이러한 형태는 신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를 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독자적 서사 구조를 가짐으로써 굿의 맥락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본풀이와는 달리 굿의 목적, 즉 신의 하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집안 연유 뉘음」은 굿하는 날짜·장소의 설명에 이어서 굿을 하는 사유를 노래하고 강신하기를 간청하는 것이다.<sup>12)</sup> 여기서 심방과 신 사이의

10) 『사전』, p. 142.

11) 『사전』, p. 16.

12) 『사전』, p. 16.

커뮤니케이션은 앞서의 제차에 비해 직설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하여 신의 행위를 유발시키고자 한다.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하고, 그러한 상황이 원인이 되어 기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기원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기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말해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하소서’와 같은 기원의 명령형이 아닌 ‘-하다’나 ‘-이다’와 같은 평서형이 주로 쓰인다.

어진 초상을 거느립고 하늘 그든 신평싯상 책상그든 신평싯상, 신의 등에  
는 산범그찌 걸어지와 천상천하 노는 신전을 청허여 이간주당 소원의 축원  
을 올리저 호옵네다.<sup>13)</sup>

따라서 「집안 연유 다툼」 역시 신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의 하강을 부추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군문 열림」은 심방이 신의 하강을 위해 가창과 난무로 신궁의 문을 열고, 무점으로써 개문 여부를 판단하여 제주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sup>14)</sup> 신궁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심방과 단골들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하자’와 같은 청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심방과 단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만, 이어지는 「산받음」「주잔 넘김」「분부 사뵐」에서는 심방이 신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거나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단골에게 전하거나, 직접 신령들의 말을 대변함으로써 신과 단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신과 인간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의 성격은 보다 분명해지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로서의 심방의 역할도 뚜렷해진다.

「새드림」은 신이 하강하는 길의 모든 사(邪: 鳥로 와전)를 쫓는 과정이다.<sup>15)</sup> 여기에는 ‘드리자’와 같은 청유형이 반복되며, 이는 심방이 그 자신

13) 『사전』, p. 49.

14) 『사전』, pp. 16~17.

15) 『사전』, p. 17.

과 단골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는 심방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칼로 본주(病者)를 찌르는 시늉을 한다든지, 찬물을 입에 물고 본주 위에 뱀은 동작을 하여, 사를 쫓는다. 이는 굿이 진행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연극적 상황이 재현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신과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오리정」은 심방이 모든 신명을 일일이 부르며 모두 오십사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이다.<sup>16)</sup> 여기서는 ‘살려옵서’라는 기원의 명령형이 반복되며, 이는 심방이 발신자가 되어 수신자인 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신을 맞을 모든 준비를 끝냈으니, 신에게 직접 하강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초감제는 주로 신을 청하는 제의적 절차이며, 이때 청한다는 것은 신의 하강을 기원하는 심방으로부터 신으로의 의사 전달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굿의 절차상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다 중요한 과정은 그렇게 청한 신에게 인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절차가 「추물 공연」 「석살림」 「보세 감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음식과 술을 올리고 노래와 춤으로 신을 놀리는 과정, 폐백과 증물을 바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기원은 물론 연극적 상황의 재현이나 본풀이의 구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이들 각 제차마다 「날과 국 섬김」 「집안 연유 닦음」 「시작 말미」 등이 반복된다.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한 초감제의 과정은 비록 신을 청해들이기 위한 제차로서 본격적인 굿을 위한 예비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다음의 개별적인 신들에 대한 제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절차가 많으므로, 이는 신과 심방 그리고 단골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 변화를 드러내는 한 전형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신과 심방 사이의 접촉이 간접적인 데서 직접적인 데로 나아가는 양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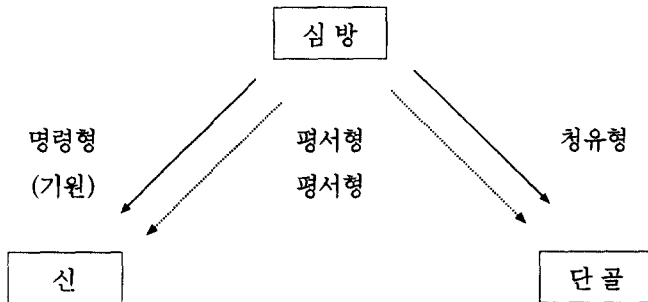
---

16) 『사전』, p. 17.



나타난다. 「베포도업침」에서 나타나는 청유형이나 본풀이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심방과 단골이지만, 본풀이의 경우 청유로 이루어지는 담론들과는 달리 그 수신자가 문면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는 본풀이가 갖는 의미 있는 특성을 드러낸다. 본풀이는 제의 절차 가운데, 심방과 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간접적으로 나타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본풀이는 그뒤에 이어지는 보다 직접적인 신과 심방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향한 통로를 그것의 열린 구조를 통해 개방하고 있다.

본풀이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면, 굿에서의 한 제차를 이르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sup>17)</sup> 이때 본풀이는 「날과 국 섬김」 「연유 닦음」 「들어가는 말미」 「본풀이」 「비님」 「주잔 넘김」 「산받아 분부 사뵈」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데, 이때에도 본풀이의 기능과 역할은 초감제에서의 「천지왕본풀이」의 경우와 유사하다. 「초공본풀이」의 경우, 그 전후에 공시풀이의 과정이 있어, 이러한 본풀이의 담론의 구조는, 「기원—평서—기원」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양상은 본풀이의 담론이 주로 평서형으로 이루어져 굿의 일반 담론인 명령형이나 청유형과 대립적인 양상을 드러내지만, 이들 담론은 굿의 맥락에서 매우 강한 인접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굿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신·심방·단골이라 할 때, 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17)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집문당, 1986), pp. 273~75 참조.

위의 그림에서처럼 굿의 현장에서 신과 단골 사이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방은 이들 사이의 매개자가 된다. 실선으로 표시된 담론은 심방이 발신자가 된, 행위를 유발하는 담론이며, 수신자가 분명한 직접적 담론이다. 제의의 주된 속성을 행위라 할 때, 이는 제의의 주도적 담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점선으로 표시된 담론은 행위를 유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담론이며 그 수신자도 분명하지 않다. 본풀이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굿의 과정에서 주도적 담론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본풀이가 굿의 과정 속에 삽입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를 굿뿐만 아니라, 무속 문화 일반적 맥락을 통해 해명해볼 필요가 있다.

#### 4. 간접화의 담론, 그 힘과 가능성

신화와 제의는 말과 행위라는 변별성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화를 제의의 짝, 즉 신화가 제의를 함축하고 제의가 신화를 함축한다고 여겨짐으로써, 결국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sup>18)</sup> 신화와 제의의 관련성은 신화를 제의의 구술적 상관물로 보는 케임브리지 제의 학파의 이론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는 말할 것도 없이 신화와 제의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풀이가 굿과 관련되는 기호학적 양상을 통해 우리는 보다 넓게 굿과 문화의 기호학적 관련 양상을 추론해낼 수 있다. 본풀이가 굿의 한 부분인 것처럼, 굿도 무속 문화의 한 부분

---

18) Edmund Leach,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 13~14; William G. Dory, *Mythography :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p. 73에서 재인용.

이다. 본풀이가 갖는 열린 구조는 그것이 굿과 갖는 인접적 관계를 보여주듯, 굿 역시 열린 구조로서 문화 속에서 인접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굿은 사회 혹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굿은 현실 맥락을 향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굿은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복은 굿이 일상적 행위와는 다른 맥락을 창조하여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로 인한 반복적 행위의 등가성은 그 나름의 시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굿이 갖는 특성은 그것이 그 연극적 재현 속에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데 있다. 굿은 현실에 대해 해석을 가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현실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임과 동시에, 해석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종의 메타커뮤니케이션적인 반성성<sup>19)</sup>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풀이가 굿과 갖는 관계와도 유사하다. 이들은 인접성과 유사성, 반영성과 반성성을 동시에 갖는 관계이며,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을 위해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또한 그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 구현을 지향하기도 한다. 가령, 터너가 말한 사회적 드라마에서 제의적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나 법적 과정과 더불어 갈등과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sup>20)</sup> 이는 제의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그것은 분명히 실용적이며 도구적인 것이다. 또 그것은 관념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며, 언어적이기보다는 행위적이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주 굿 역시 마을

19) 여기서 메타커뮤니케이션이란 '커뮤니케이션 자체보다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성적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굿과 본풀이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간접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며, 그러한 간접화에 담겨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성적 수정이 유효화됨으로써 메타커뮤니케이션적 성격을 띤다.

20) Victor Turner, "Are There Universals of Performance in Myth, Ritual, and Drama?," Richard Schechner & Willa Appel, eds., *By Means of Performance: Intercultural Studies of Theatre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0.

의 안녕이나 풍어 등을 빌거나 사자의 혼령을 인도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갈등을 푸는 행위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그 행위의 목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갈등에 대해 인간이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과는 달리, 제의는 많은 부분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며,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목적을 이루는 데 직접 작용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제의는 행위이되, 언어 혹은 가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간접성을 유효화시킨다. 처용이 역신 앞에서 행한 가무 행위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천하는 행위 대신, 말의 힘에 기대는 행위, 그것이 제의라면 그 제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화야말로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새로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제의는 사회적 드라마의 연극적 재현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수사적 형상이 창조되고, 질곡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꿈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굿은 그 자체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반성이며, 이에 걸맞는 메타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산출된 결과다.

이러한 양상은 본풀이와 굿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굿의 담론은 어떤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담론이다. 그것이 비록 현실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의를 진행시키는 데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 주체는 물론 심방이다. 심방에 의해 기원의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나타나는 담론은 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는 본풀이를 둘러싼 담론이 갖는 일반적 성격이다. 그러나 본풀이는 평서형의 담론으로 행위의 유발과는 거리가 있다. 마치 제의의 진행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본풀이 역시 굿이 문화에서 존재하는 양상과 같이 존재한다. 앞서 분석했듯, 본풀이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이는 “귀신은 본을 풀민 신나락하는 법이 읊고”와 같은 담론이나, 그것이 굿과 갖는 인접성, 그리고 열린 서사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풀이는 또한 간접화의 담론이기도 하

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담론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를 유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잠시 유보시키는 담론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와 형상은 창조된다. 제의와 삶의 비전이 메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본풀이에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삶의 진행 속에서 그것의 진행을 위해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곳과 또 그 곳의 진행을 위해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본풀이의 문화적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말과 행위의 역설적 관계를 연상시킨다. 본풀이는 말이지만, 말이 오히려 행위보다 더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행위하지만, 말 또한 행위가 되어 그 목적을 실현시킨다. 직접적 행위보다는 간접적 행위(굿), 직접적인 말(청유와 명령)보다는 간접적인 말(평서)이 삶의 진행에서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상징의 힘을 통한 의미의 생성으로 보인다. 문화에서 핵심은 오히려 여기에 있다. 한국 무속 문화에서 삶의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바로 가장 간접화된 담론인 본풀이에 있으며, 그것은 문화의 보편적인 역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